



# 부산신항 개장대비 시범 컨테이너선 첫 입항

## 2006년 1월19일 선석 3개 가동 정식 개장

부산 신항이 12월16일 첫 컨테이너 선박 입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가고, 2006년 1월19일 공식 개장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있는 등 부산항 제2의 개항시대를 열 신항 개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.

해양수산부와 부산신항만(PNC)은 12월16일 부산 신항 개장에 대비해 신항에 실제 기항하게 될 선박 크기의 컨테이너선을 동원, 신항만 시범운영 및 신항항로 답사행사를 마련했다.

이날 행사에는 오거돈 해수부 장관과 김순갑 한국해양대 총장, 추준석 부산항만공사(BPA) 사장, 안경한 PNC 사장,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,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항만물류 기관·단체와 업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.

참석자들은 이날 부산항 감만부두 한진터미널에서 한진해운의 5,3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'한진오슬로호'에 승선해 3시간가량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1-1단계 3개 선석까지 가면서 신항항로의 안전성 및 항로 표지시설의 적정성 여부와 신항만 해상교통관제(VTS) 상황, 선박 입출항 과정 등을 점검했다.

이들은 이어 부산 신항 1번 선석에서 안벽에 설치된 갠트리크레인 등 각종 하역장비가 동원돼 한진오슬로호를 대상으로 펼치는 하역·적재·운송시범을 참관하며 터미널 운영 준비상황을 살펴봤다.

해양수산부는 이날 항로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출입항 항로 및 부두운영상의 미비점을 파악해 앞으로 신항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보완·개선하는 한편 세관과 출입국관리사



무소, 예·도선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철저한 협력을 통해 부산신항을 차질없이 개장·운영할 방침이다.

또 이날 부산 신항 입구 연도섬에 최근 완공된 부산지방청 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상관제에 들어갔다.

해양수산부는 특히 첫 외국선사 컨테이너선이 부산신항에 입항할 예정인 1월6일께 세미 기념식을 가진 뒤 1월19일 신항에서 공식 개장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부산시와 PNC, BPA, 부산지방청 등 부산지역 관계기관들과 전야제 및 당일 기념식 준비작업을 협의하고 있다.

부산 신항은 1월 5만톤급 대형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3개 선석이 조기 개장돼 연간 90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을 갖추게 된다.

또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0개 선석(5만톤급 25개 선석, 2만톤급 5개 선석)이 조성돼 연간 804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의 메가 허브 포트로 부상하게 된다.